

“교육혁신의 길 걸을 것”

김승환 교육감 당선인



아니라, 교육감으로서 학습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 자신의 지난 8년 세월을 돌이켜 살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를 18대 전북교육감으로 선택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혁신의 길을 가겠습니다. 현재의 시인이면서 미래공동체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워내고 마음껏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최선 최대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과 학생 여러분! 저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도민 여러분들로부터 세 번째 교육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44일 동안의 선거운동기간 동안 저는 전북의 14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따뜻한 눈빛과 손길을 만나기도 했지만, 가끔씩 싸늘한 반응 앞에서 서기도 했습니다.

교육감 직에 있을 때는 미처 듣지 못했던 것을 들었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거의 과정이 저에게는 단지 득표활동의 과정에 머무르는 것이

“군민들의 힘 모아 지역발전에 더 열심히”

박성일 완주군수 당선인



히 여겼던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과 했던 약속을 성실히 지켜나감으로써, '군민 소득도 더 올리고 삶의 질도 더 높'을 생각입니다.

15만 자족도시 완주시로의 대도약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인구 15만명 달성을 위해 완주군민의 현명한 선택은 우리 완주의 밝은 미래와 함께, 현 문재인 정부와 선순환 경제구조를 갖는 자족도시의 틀을 갖추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민선6기 공약이행률 97.5%, 4년 연속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등을 통해 군민과의 약속을 소중

4년 전에 이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군민을 바라보며 열심히 뛰겠다는 저의 진심을 믿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모두가 행복한 으뜸완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민의 현명한 선택은 우리 완주의 밝은 미래와 함께, 현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도 분명 큰 힘이 됩니다.

저 또한, 집권여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으로서, 완주군민과 힘을 모아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완주발전에 더 열심히 뛴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나 진안과 함께할 것”

이항로 진안군수 당선인



회에 우리진안의 발전을 위해 참여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 이항로 언제나 진안과 함께하고 진안을 위한일이라면 지우고하를 막론하고 사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입기가 끝나 내려올 때 군민의 평가를 두려움으로 간직할 채 군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경쟁했던 이창국, 박수우 후보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저 이항로를 민선7기의 진안군수로 선택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민의 압도적지지로 다 시 한번 저 이항로를 선택하신 것은 군민의 삶이 행복해지고 생활이 편리해지는 군민중심의 행정을 계속 이어가라는 성원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제는 하나의 진안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 때의 반목과 갈등은 내일의 더 큰 진안을 위해 잊어버리고 다 같이 협력해야 합니다.

이창국, 박수우 후보님이 제가 공약했던 공약평가단, 미래비전위원회

“잘 사는 무주, 활력있는 농촌 만들 것”

황인홍 무주군수 당선인



보내준 성원과 관심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약속했던 공약을 반드시 지켜겠습니다.

사람, 자연, 가치가 공존하는 품격있는 무주를 무주군민들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새벽이슬과 함께 시작한 하루, 밤 이슬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백경태 후보님께 위로를 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군민여러분이 잘 사는 무주, 활력있는 농업·농촌 만들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무주군민여러분!

군민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무주군수 황인홍 당선자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군민여러분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였습니다. 이번 무주군수 선거의 승리의 요인은 바로 군민여러분들의 위대한 힘과 동력이 힘 입은 소중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이번 무주군수 선거에서 저에게

“군민 모두의 승리... 그 순간을 가슴 속에”

장영수 장수군수 당선인



그리고, 이 모든 당선영예를 군민여러분들께 바칩니다.

후원회장을 맡아주시는 권광열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거기간동안 끝까지 선전하신 배한진, 이영숙, 김창수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또한 장수군의 승리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영광된 순간을 늘 가슴 속에 품고 살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수군수 선거에 당선된 장영수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장수군수 선거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장수는 새로운 시대의 발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장수에 다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번 결과는 비단 저만의 승리가 아닌 군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또한 장수군의 승리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영광된 순간을 늘 가슴 속에 품고 살겠습니다.

“지역발전 미래 지향 창조행정 혼신”

심민 임실군수 당선인



래를 지향하는 창조행정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와 선의의 경쟁을 해 주신 정삼전만을 생각하고 계시는 모든 군민들의 승리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충절의 고장, 임실 군민에게 결코 흔들림 없이 냉철하신 판단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기대에 결코 실망하지는 일이 없도록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제 1의 정치신념으로 생각하고 임실군의 발전과 미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성원!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승리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임실군 발전을 생각하고 계시는 모든 군민들의 승리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충절의 고장, 임실 군민에게 결코 흔들림 없이 냉철하신 판단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기대에 결코 실망하지는 일이 없도록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제 1의 정치신념으로 생각하고 임실군의 발전과 미

“마지막 열정을 군민 행복에 쏟아부을 것”

황숙주 순창군수 당선인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함께 경쟁한 두 후보에게도 위로를 전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닌 3만 순창군민 모두의 군수로서 일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이제 선거기간 갈등과 반목을 접고 함께 정을 나눴던 예전 이웃과 친구로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순창의 발전과 군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어느때 보다도 벅찬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에 영광스런 승리를 만들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 승리는 새 시대를 여는 더불어 민주당의 승리이고 새로운 순창의 발전을 열망하는 3만 군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저는 지금 저를 선택해주신 군민의 뜻을 어느때 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군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들어 제 마지막 열정을 순창군의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쏟아 부었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

유기상 고창군수 당선인



그동안 선거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 주신 박우정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군민 여러분의 소리를 귀 기울이며 고창을 변화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으로 새롭게 군정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고창군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창을 발전 시켜 달라는 염원으로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투명하고 깨끗한 고창군을 만들겠습니다.

“생거부안의 명성 되찾을 것”

권익현 부안군수 당선인



직속으로 설치해 일자리 마련에 곧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가 풍부한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년, 노년, 여성층의 일자리를 통합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고용주와 고용희망인을 총망라한 일자리 창출 전담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어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 소득중심의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겠습니다. 항상 군수실을 개방해 군민 누구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군민을 우러러 보는 복민 군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민선 7기 부안군수 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그간 지지해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리며, 다른 후보를 지지한 군민들도 함께 아울러 완전히 새로운 부안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군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제 공약을 바탕으로 그동안 잘못되고 부패한 군정을 바로잡고, 생거부안의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제가 공약으로 제시한 4대 비전, 12대 약속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속히 마련해 발표하겠습니다. 이어 경제발전 특별위원회를 군수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투표율 상승...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열기가 원인”

선관위, 60.2% 기록... 전북지역 최종 투표율 65.3% 전국에서 3번째 높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에서 두 번째로 높은 60.2%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이러한 투표율 상승 요인으로 국민들의 정치 의식과 참여 열기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진 이번 선거에는 4290만7715명 유권자 중 2584만 1740명 참여해 60.2%의 잠정 투표율을 기록했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1회(1995년) 68.4% ▲2회(1998년) 52.7% ▲3회(2002년) 48.8% ▲4회(2006년) 51.6% ▲5회(2010년) 54.5% ▲6회(2014년) 56.8%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 상승 원인에 대해 “지난해 대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정치 의식과

참여 열기가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투표 편의성을 개선한 사전투표 제도가 지난 세 차례의 전국 단위 선거를 거치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다는 점과 선관위가 다양한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인 것이 기여한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는 첫째 11.49%의 참여율을 나타냈고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는 12.19%로 집계됐다.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에선 26.06%로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또 선관위는 투표 독려를 위해 선관위 홍보대사와 연예인들의 홍보 영상 등을 활용한 각종 캠페인을 꾸준히

이러었다.

전북지역 최종 투표율 65.3%...전국 3번째 높아

6·13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지역 투표율이 65.3%로 집계됐다.

13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6시 지방선거 투표가 모두 종료된 가운데 전북지역 투표율은 65.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9일 진행된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를 합산한 것이며 도내 총 선거인수(유권자) 152만7729명 중 99만7228명이 투표를 한 것이다.

이같은 투표율은 전국 평균(59.3%)보다 높은 것이며, 전남과 제주에 이

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이다.

지역별로 투표율을 보면 장수가 82.7%로 가장 높았고 무주와 순창도 80%를 넘어섰다. 반면 군산이 60.2%로 가장 낮았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앞서 치러진 5회 지방선거(2010년)와 6회 지방선거(2014년)에 비해 높은 것이다.

5회 지방선거는 59.3%, 6회 지방선거는 59.9%로 60%를 넘어서지 못했다.

한편 이날 투표시간이 끝난 뒤 발표된 KBS와 MBC·SBS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전북도지사 1위는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후보, 전북도교육감 1위는 김승환 후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성 기자

홍준표 “오늘 거취 밝힐 것”... 한국당 대표직 사퇴 시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6·1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참패로 나온 것에 대해 “출구조사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참패한 것”이라고 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한 뒤 “그 참패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러나 아직도 믿기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개표가 완료되면 내일 오후 거취를 밝히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14일 오후 2시께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홍 대표

는 이 자리에서 향후 거취와 관련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전부터 대표직을 걸고 광역 6곳 수성에 승부를 건 홍 대표가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오후 6시 지상과 방송 3사(KBS·MBC·SBS)가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 한국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17곳 중 대구·경북 2곳에서만 승리하며 사실상 참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

평화당 조배숙 “전북·전남서 의미있는 지지율 얻어”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13일 치러진 제7회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들의 지지

기반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남지사, 전북지사 승리를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의미있는 지지율을 얻었다”면서 “(승리가 예상되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도 있다”고 기대했다. /뉴스